

부동산PF보다 급한 물가·가계부채...금리 동결 유력

전문가들 "11일 금통위 3.50% 유지...이르면 7월~연말 0.5~1.0%p 인하할 듯"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 3.50%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영건설 유동성 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진 것은 아닌 만큼 한은이 금리 인하로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구나 아직 3%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실하지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들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의 통화 정책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미국을 따라 완화 쪽으로 돌아서 연말까지 0.5~1.0%포인트(p)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봤다.

◇'부동산PF·소비부진 등에 금리 인상은 더 불가능'=7일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아직 금리를 낮출 만큼 물가와 가계대출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에서 내리치지 않고 있고, 한은도 최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라며 "서비스를 포함해 기초적 물가 흐름을 결정하는 근원물가(항목)들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유난히 높고, 이에 대한 한은의 문제의식이나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약한 경기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리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불확실하니까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히 많이 안 떨어지는 데다 미국의 현재 통화정책 등을 고려할 때 내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동결 확률이 100%"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금리보다 유동성공급·구조조정 등 미시 대응해야'=전문가들은 태영건설 사태로 더 커진 부동산 PF 불안이 명분으로 당장 한은이 이런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오지훈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영건설과 같은 가시적 PF 문제와 잠재적으로 상존하는 PF 위험이 존재하지만, 미시적 부동산 PF 문제가 거시 경제 전체 리스크(위험)로 전환될 가능성은 작다"며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에 부동산 PF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선민연구위원 역시 "부동산 PF 때문에 통화 정책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크게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가계부채에 문제가 생기거나 금융회사 부실이 커지면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부동산 PF 문제가 통화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의 부동산 PF 관련 조치로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 공급 등을 예상했다.

◇'미국 6월 낮추면 한은 7월 인하 가능성'=금리 인하 시점은 대체로 하반기 이후, 이르면 7월로 예상된다.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과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착, 내수 부진 등을 확인한 뒤 한

은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7월 첫 인하를 점치며 "소비가 하반기로 갈수록 부진할 가능성이 큰데다, 이때쯤 서비스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 하락도 뚜렷해지면서 한은의 정책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7월로 봤다. 그는 "부동산 PF 문제로 올해 건설투자 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위험이 커져 내수 경기가 지속적으로 억눌릴 것"이라며 "이는 수출경기 회복 효과를 상쇄하면서 한은의 올해 성장 전망 경로(2.1% 성장률)에 하방 리스크가 점차 고조되고, 이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도 2분기 이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가 0.25%p씩 모두 네 차례, 1.0%p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7·8·11월 세 차례, 총 0.75%p 인하를 전망한 전문가가 한 명씩이었고, 4명의 전문가가 는 두 차례 0.50%p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광주은행, 대유위니아 '지역제품 사주기' 동참

1억8천만원 상당 김치냉장고 구매 '위기 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광주시청을 찾아 대유위니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광주시는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 행사장과 시청 1층 시민홀에 대유위니아 제품을 전시해 판매를 지원하는 등 지역 제품 구매 운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도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대유위니아 그룹과 지역협력업체가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이날 1억8000만원 상당의 담채 김치냉장고를 구매해,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나누고 협력관계를 다졌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대유위니아의 빠른 회생 절차가 이뤄져 지역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광주은행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위니아 협력업체들에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 1년 유예 공사비 감소에 건설 투자 활성화?

정부가 아파트 등 민간 공동주택에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1년 유예한다.

건설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덜어줘 올해 역성장 이 예상되는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족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신축 건물 등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정부는 2020년 1000㎡ 이상의 공공건물이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50년 모든 건물이 1

등급(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받도록 하는 로드맵을 계획했다.

민간 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등급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민간 공동주택의 ZEB 인증 의무화 시점을 내년으로 미뤘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설 투자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ZEB 인증 의무화로 공사비 등이 상승해 건설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규제로 공동주택의 공사비가 4~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ZEB 인증 의무화가 유예되면 최대 8%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건설투자가 지난해 2.7% 성장한 뒤 올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는 7일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세계 랜드마크 13곳에 디지털 옥외 광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광고에는 정육면체의 메탈릭 큐브가 별 모양으로 변하며 '갤럭시 시가 온다'는 문구가 나타난다. 사진은 태국 방콕 센트럴월드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디지털 옥외 광고. <삼성전자 제공>

해양에너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료 감면 신청을"

모바일 앱·행복센터 등서...1만8000원~14만8000원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7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경감 혜택을 홍보하는 활동에 나섰다. <사진> 7일 해양에너지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 범위와 금액이 확대됐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해양에너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

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양에너지 고객센터를 방문해 경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동절기 경감금액은 대상자별로 1만8000원부터 최대 14만 8000원까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는 월 최대 14만 8000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최대 8만 6000원, 장애인 및 유공자는 최대 7만 2000원,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 확

인서 발급 대상자는 최대 1만 8000원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지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경감제도를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면으로 고민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전남 8개 시·군에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 등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럭셔리 생활용품 매출 신장 눈에 띄네

수입 가구·스피커 등 판매 늘어

명품에 대한 관심이 의류를 넘어 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신세계가 럭셔리 오피스 가구 브랜드 'USM'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신세계는 USM 외에도 특별한 생활용품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본관 8층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인다. <사진> 우선 USM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스위스 가구 업체로, 럭셔리 오피스 가구의 대명사다. USM의 오피스 가구는 글로벌 기업의 사무실과 박물관 등 사무용 공간에서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모습도 SNS를 통해 노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인 '드비알레'도 주목받고 있다. 드비알레는 청각과 시각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문의와 판매



가 이뤄지고 있다. 또 토스터 판매 브랜드 '발뮤다'는 특별한 토스터를 할인 판매 중이다. 발뮤다 매장은 오는 25일까지 뉴 토스터 등 일부 품목을 10만원 기량 할인 판매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비싼 차 몰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안 된다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만 재계약 가능

앞으로 페라리, BMW와 같은 비싼 차를 몰고 있는 이들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 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된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주주택 가구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로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10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7	13	28	36	42	4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100,529,500	13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0,681,964	75
3	3개 숫자일치					1,353,300	3,363
4	4개 숫자일치					50,000	159,797
5	3개 숫자일치					5,000	2,596,082